

광주 '국제광산업전시회' 329억원 수출계약 성과

27개국 73개사 참가 수출상담 2448억 4일 폐막...LED 제품·피부치료기 인기

지난 2일부터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차세대 광기반 융합사회 구현을 주제로 열린 '2013국제광산업전시회'가 329억원의 수출계약 성과를 거두고 4일 폐막했다. 지역 광산업 업체의 수출판로 확보에 특목히 기여한 것이다. 6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한국광산업진흥회와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서는 미국과 일본, 러시아를 비롯한 27개국에서 광(光)관련 바이어 100여명이 참가했으며 네오마루, 제이룩스 등 73개사에서 수출상담액 2448억원, 수출계약액 329억원의 성과를 올렸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이번 전시회

는 동부라이텍 등 국내 LED관련 대기업에 비뿔한 글로벌광통신, 오이솔루션 등 국내 광관련 국내외 164개 업체(286개 부스)가 참여하는 등 국내외 광산업체와 광관련 산업 전문가 및 일반시민, 학생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 속에 치러졌다. 행사장을 찾은 4일은 폐막일이었지만 꾸준히 밀려드는 관람객과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LED를 이용한 제품을 보는 학생들로 행사장은 북적이었다. 특히 LED를 이용, 농생명 분야 및 의료기기 등 다양한 광융합 산업 기술을 선보인 것은 관객들의 이목을 사기에 충분했다. 시선을 끈 것은 광주시 공동브랜드



광주 국제광산업전시회에서 바이어들의 관심을 모은 LED 피부치료기 '링크헤바'. LED 파장을 이용한 피부미백효과가 특징이다.

'MIG'(Made in Gwangju) 2호 기업인 프로맥LED(대표 정선태)의 공장용 조명등과 UVLED, 프로맥LED가 새롭게 내놓은 공장용 조명등은 기존 제품에 비해 에너지절감효율을 75% 이상 절감시킨 새로운 친환경제품으로 등극했다. UVLED의 경우, 광주시가 북구 서방지하상가에 추진중인 LED 식물공장에 투입되며 팜공새책

재배에 활용된다. LED가 친환경농업용 제품으로 발돋움한 것이다. 무역협회 현장상담을 통해 동남아에 수출계약을 한 링크옵티스(대표 최용원)의 의료용 피부치료기 '링크헤바(LINKHEBA)'도 해외 바이어의 관심을 샀다. 링크헤바는 2012년부터 전남대병원과 공동개발한 LED 피부치료기로, LED 특정 파장에서 발출

되는 에너지를 이용해 피부 진피층의 섬유세포 자극을 통한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생성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존 레이저 기술에 비해 부작용이 없으며 수입 외산장비가 주를 이루는 피부치료기 시장에서 광주지역 기업이 성능과 안정성이 검증된 국산 LED 피부치료용 의료기기를 출시해 큰 주목을 받았다. 조용진 한국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전국 광산업체를 대표하는 사업자단체로서 광산업의 발전과 광산업체 매출신장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국제광산업전시회를 국내 유일의 광 관련 전문 전시회로, 전세계 광산업 트랜드를 한눈에 확인하고 최신의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기회와 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룡기자 exian@kwangju.co.kr



지난 3일부터 나흘간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3 빛고을 핸드메이드페어'에 에 몰린 관람객들. (광주디자인센터 제공)

'빛고을 핸드메이드페어' 1만명 찾아 매출액도 작년보다 200% 이상 늘어

'2013 빛고을 핸드메이드페어'가 지역 수공예품 비즈니스 시장으로 자리매김했다. 6일 광주시와 광주디자인센터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4일간 김대중컨벤션센터 3전시관에서 열린 '2013 빛고을 핸드메이드페어'에 모두 1만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4000여명에 비해 250%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매출액도 지난해보다 200% 증가한 1억 6000여만원에 이르렀다. 이번 행사에는 광주지역 90여개 수공예품 업체를 비롯, 120여개 공방과 예비창업자, 공예디자인 전공 대학생들이 솜씨를 뽐낸 1000여종의 수제품들이 대거 전시됐다. 참가업체인 목조형에 슬원(대표 공병목)의 목공예품은 첫

날 모두 팔렸으며 윤준영과 색동, 목운방, 여우비, 대정공방 등도 기대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이창숙 한글퍼움(예비사회적기업) 대표는 "그동안 많은 행사에 참여했는데, 이번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가 가장 인기를 끌었다"며 "4일간 체험객수가 300여명을 넘었다"고 말했다. 장상근 광주디자인센터 원장은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는 '끼'와 '솔씨'가 우수한 지역 공방과 예비창업자의 판로 및 매출증대를 지원하고자 마련된 행사"라며 "광주 수제품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는 물론 창조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차별화된 마케팅으로 수도권은 물론 해외 판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동룡기자 exian@kwangju.co.kr

삼성전자 분기 영업이익 10조 시대

3분기 10조 1000억 달성...매출도 59조원 사상최대

삼성전자가 한 분기에 영업이익 10조원을 올리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또 분기 매출 60조원 시대도 눈앞에 뒀다. 삼성전자는 3분기 실적(연결기준)이 매출 59조원, 영업이익 10조1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4일 공시했다. 이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지난 2분기(매출 57조4600억원, 영업이익 9조5300억원)보다 매출은 2.68%, 영업이익은 5.98% 각각 증가한 것이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두 분기 연속 사상 최대 실적행진을 이어갔다. 영업이익률도 17.1%를 기록, 처음 17%대에 올라섰다. 삼성전자는 2010년부터 분기별 연결기준으로 실적을 발표했으며 종전 최고 영업이익률은 올 1분기의 16.6%였다. /연합뉴스

삼성전자가 이날 발표한 잠정 실적은 증권사들의 전망치를 상회한 것이다.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예프앤가이드가 작성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9조9731억원이었다. 특히 이번 잠정 실적 발표는 삼성전자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TV사업·디스플레이사업 등의 부진과 모바일 사업의 실적 둔화 등을 이유로 우려를 표시했다. 실제로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치를 계속 하향 조정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25일 실적 확정치를 공시할 계획이다. 통상 잠정실적은 실제 확정치보다 낮게 산정되는 것을 고려하면 삼성전자의 실제 3분기 실적은 이날 발표된 잠정치보다 더 좋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지난 3일 현대삼호중공업이 육상건조된 LNG선을 플로팅독으로 빼내고 있다. (현대삼호중공업 제공)

현대삼호重 세계 최초 LNG船 육상건조

현대삼호중공업이 척당 2000억원이 넘는 고부가가치 선박인 LNG선을 세계 최초로 육상에서 건조하는 데 성공했다. 6일 현대삼호중공업에 따르면 노르웨이 골라사로부터 수주한 LNG선을 세계에서 최초로 육상에서 건조한 뒤 지난 5일 플로팅독으로 빼내는 데 성공했다. 16만2000CBM(Cubic Meter, 가로·세로·높이가 각 1미터인 부피 단

위)급인 이 선박은 축구장 두 개보다 긴 길이 289m, 폭 45.6m, 깊이 26m의 크기로, 순수 무게만 3만4000여t에 달한다. 올 3월 강제절단을 시작으로 7월 첫 번째 블럭을 육상건조장에 배치한 이후 공정이 까다로운 액화가스 화물창을 비롯, 엔진, 프로펠러, 외벽 등 선박 건조작업을 대부분 마무리했다. 6일 진수 후 배관과 전선 등 일부의 장과 도장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동룡기자 exian@kwangju.co.kr

두 차례의 시운전을 거쳐 내년 7월 말 인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비교적 선가가 싼 유조선이나 벌거, 컨테이너선을 육상건조방식으로 건조한 조선사는 많았지만 고부가가치 선박인 대형 LNG선을 육상 건조방식으로 건조한 곳은 현대삼호중공업이 세계에서 처음이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이번 호선을 시작으로 10척을 육상에서 연속 건조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현대경제연구원 내년 성장률 3.8% 전망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3.8%로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6일 내놓은 '2014년 국내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내수 회복은 미약하지만,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 침체로 인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외수 회복이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 근거를 밝혔다. 미국이 주력 경기 회복과 제조업 경기 개선에 힘입어 2% 후반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선진국 중심으로 세계 경기가 회복되면서 세계 무역이 5.4%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세계 무역 증가율은 2011년 6.0%, 2012년 2.5%였으며 올해는 3.1%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내년 한국의 수출은 8.4% 증가하고 무역수지와 경상수지는 각각 399억 달러와 49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내수는 가계부채, 전세가 상승, 고령화로 인한 평균소비성향의 하락 등이 제약 요인이면서 민간소비

증가율은 올해 2.0%에 이어 내년에도 2.7%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6월에 발표한 2.6%를 유지했다. 특히 소비재물가가 장기간 1%대에 머무는 점을 지적하면서 디스플레이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올해 한국 경제의 특징을 '저성장 저물가'로 정리했다. /연합뉴스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4	5	6	25	26	43	41	
등 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3,508,951,032					4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66,837,163					35
3	5개 숫자 일치	1,504,374					1,555
4	4개 숫자 일치	50,000					74,789
5	3개 숫자 일치	5,000					1,275,890

전문건설협회 광주시 회장에 송성홍씨 추대

제8대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 회장에 ㈜디자인그룹 송가솔씨의 송성홍(62) 대표이사 추대될 전망이다. 6일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에 따르면 오는 10일 오전 11시 광주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에서 2013년도 임시총회를 열어 차기 회장

을 선출할 예정이다. 이날 총회에서 송성홍(62) 대표이사 추대될 전망이다. 송 부회장이 회장으로 추대되며 오는 11월1일부터 4년간 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를 이끈다. /임동룡기자 exian@kwangju.co.kr

씻 코

황사, 꽃가루, 미세먼지로 간지러운 코

■ 콧속에 뿌리는 비강세척제 - 엔클 비액

- 배농효과! 만성비염, 알레르기, 비염환자의 과용으로 인한 막막 건조 신속히 개선
- 무자극! 인체와 깊은 농도의 생리식염수농도로 자극적이지 않고 축적된 점막 유지
- 휴대편리! 스프레이 타입의 제품으로 비강 내 삼입이 편리하며 이동 시 휴대 간편
- 안심사용! 은가죽이 상해할 염려 없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착한 향기의 알코올프리

※어린이, 학생, 직장인 등 남녀노소 누구나 코 건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능·효과 / 비염, 만성비염, 알레르기 비염, 비염환자의 과용으로 인한 막막 건조 신속히 개선
용법·용량 / 성인: 용량에 따라 1회 1회 비강세척제 2회 2회 비강세척제
※연령, 증상 등에 따라 용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뽕 코

알레르기비염, 콧속염증으로 답답한 코

■ 콧속에 뿌리는 비충혈제거제 - 트인 비액

- 배농효과! 코막힘으로 인한 잠 못 이루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으로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
- 중성액성! 꽃가루 알레르기 비염, 부비강염으로 인해 코가 막히는 답답한 증상들 해소
- 휴대편리! 스프레이 타입의 제품으로 비강 내 삼입이 편리하며 이동 시 휴대 간편
- 안심사용! 전신적인 작용 없이 코 안 화상없이 작용하는 착한 향기의 알코올프리

※어린이, 학생, 직장인 등 남녀노소 누구나 코 건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능·효과 / 감기, 고초열, 목감기, 인후염, 알레르기 비염, 비염환자의 과용으로 인한 막막 건조 신속히 개선
용법·용량 / 성인 및 12세 이상 어린이: 용량에 따라 1회 4회, 2회 2회 비강세척제 2-3회 비강세척제

제품문의 02)3489-6186 광고심의필: 1202-0705 인터넷 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의 상의하십시오.

한림제약주식회사
http://www.hanlim.com